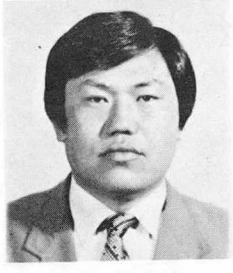
권 두 언

양돈인들이여 ! 힘을 기르자



최 희 오
(본회 군산옥구 지부장)

우리는 격동의 90년대를 맞이하였다. 국내외적으로 여러가지 급변하는 정세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속에서 우리 양돈인들이 어느 위치에 서야 할지 염려가 앞선다.

민주화의 물결속에서 자기 몫을 찾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개방화 물결속에서 한국축산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큰 걱정으로 남아 있다.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추구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농민들만이 희생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양돈인들은 각성하여 생존권을 찾아야 하며, 그에 따른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현 시점에서 구조적인 사회문제를 냉철히 판단해야 한다. 그 가운데 양돈산업이 정부정책의 잘못으로 어려워졌다고 생각할 때 한탄하고 원망하기 이전에 다같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 바로 양돈인들이 만든 협회를 중심으로 양돈산업 발전을 위하여 얼마만큼 시간과 정력을 투자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모래가 모래 그대로 있으면 물결에 휩쓸려 가지만, 모래와 모래 사이에 시멘트라는 물체를 결합시키면 흐르는 물도 막을 수 있다는 속설이 있다. 전국의 20만여 양돈인들 가운데 응집력 있게 양돈산업 발전을 위하여 희생과 노력하는 자가 몇명이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이유인즉 양돈인들이 협회를 결성할 때 먼저 선도적 역할을 할 만한 분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입장을 보면 양돈경영에서 나름대로 경영에 철학을 갖고 있다는 말을 한다. 이런 교만과 아집을 볼 때 그런 사람들이 불쌍한 생각이 교차한다.

예전에 협회에서 겪었던 일들이 언뜻 떠오른다. 어려운 양돈인들이 회비다 홍보비다 하여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소리가 많았다. 또 지역 소비홍보 활동을 할 때 뒷짐지고 먼데서 바라보는 파렴치한 그들을 볼 때 존경보다는 비웃음 밖에 나오지 않았다.

달리는 양돈산업의 열차속에 무임승차가 웬말인가? 양돈산업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기에 앞서 양돈인 스스로 힘을 기르고 스스로 해결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민주화도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요즈음 다방에 앉아 있으면, 넥타이 맨 사람들이 정치는 어떻고, 경제는 어떻고 목청만 높이며 세상 돌아가는 일에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된다.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나는 이 나라를 다시 걱정할 때가 많다. 물론 건전한 비판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게 비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서로 지양해야 할 것이다.

자기는 양담배 피우면서 국산을 애용하라고 외쳐대는 목소리는 주체성을 상실한 일이 아닌가? 언제부터인가 외제면 무조건 좋아하는 선호사상으로 소비풍조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물건을 만드는 기업인들이 각성해야 한다. 또 우리가 애국하는 길은 개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스스로 해결하고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면, 우리 양돈인들은 생산자의 모임에 스스로 참여하여 함께 정책개발을 창출하여야 한다.

우리는 다원화된 사회에 살고 있다. 타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항상 상대적으로 대치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양돈산업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기에 앞서 양돈인 스스로 해결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양돈인과 무관한 제삼의 세력이나 정략에 의해서 양돈산업이 위축된다면 스스로 자멸하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아울러 아직도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양돈인들이 있다면 자기 위치를 다시하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달리는 양돈산업의 열차속에 무임승차가 웬말인가? 나는 이 글을 쓰면서 어떤 정책이나 계수적인 수를 논하지 않고 소박한 농민의 한 사람으로 솔직한 심정을 표현한다. 결코 우리 민족이 서로를 돕는 품앗이 하는 농민상이 되살아 나기를 바란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기에 오늘의 삶이 필요한 것이다. 또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와 희망속에서 삶을 추구한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도와가면서 발전을 추구한다면 양돈산업도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다고 생각한다. 모든 삶이 그러하듯이 전양돈인들이 한데 모여 힘을 길러야 한다.

우리의 권익과 발전을 기대하면서 이 글을 맺는다. 農協